

# [31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동아시아 3국의 거장들 (정윤아)

## 10/5 1강. 김환기 (1913-1974)

### 강의 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모던 추상화의 대표 화가로 칭송 받는 김환기의 예술 세계를 심도 깊게 살펴본다. 달, 매화, 학, 달 향아리, 청자와 같은 한국적인 모티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점화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떻게 한국 현대 미술의 미학적 원형을 구축하였는지 들여다본다. 도쿄, 파리 그리고 뉴욕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세계 미술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리타향에서 치열한 노력과 인고의 세월 끝에 자신이 태어난 섬마을의 푸른 바다와 그리운 고국의 저녁 하늘을 수놓은 별을 헤아리듯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화폭에 담아 마침내 자신만의 추상화를 완성해낸 김환기의 아름다운 예술과 삶을 고찰하기로 한다.

### 1) 도쿄 시기 (1931-1937)

한국의 다른 당대 예술가처럼, 김환기도 일본에서 서양의 추상예술을 간접적으로 처음 접했다. 니혼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이 시기에 입체파와 야수파를 위시한 유럽의 모던아트에 기반해 기하학적 추상을 탐구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확장하면서 자주성을 추구, 한국의 자연 풍경과 다양한 전통 문양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둥근 하늘, 둥근 향아리와 푸른 하늘, 하얀 향아리. 그것들은 한 쌍이다”라는 그의 시적인 표현처럼 말이다. 1936년 졸업 후, 도쿄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 2) 파리 시기 (1956-1959)

1956년 김환기는 추상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파리행을 감행한다. 사실 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1946-49)를 거쳐 1952년부터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술적 실험을 감행하기 위해서 파리행을 실천한 것이다. 고된 외국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이 더욱 확고해짐에 따라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 주제와 풍경을 깊이 탐구하고, 다양한 색 면과 테두리 선으로 단순한 형태를 추구했다.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을 보면, 낯선 땅에서 머문 3년간의 삶에서 유럽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에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매달렸는지 작품 한 점으로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 3) 뉴욕 시기 (1964-1974)

1959년 파리에서 귀국한 김환기는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출전을 계기로 교수이자 성공한 화가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자신의 아방가르드 실험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다시 뉴욕으로 떠났다.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미국관을 대표한 추상화가 아돌프 고틀리브(Adolph Gottlieb, 1903-1974)와 친분을 쌓게 된 김환기는 뉴욕에서 고틀리브와 가깝게 지냈으며, 그를 통해 미국 추상표현주의 대표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를 소개받았다. 이후 로스코는 그 극단적 순수성과 색채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인해 그가 가장 찬미한 예술가로 남았다. 이처럼 그는 뉴욕에서 접한 미술문화로부터의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다양한 매체들을 실험하면서 자기 것으로 승화시켰다.

#### - 점화의 탄생

모자이크 같은 점들, 소위 '점화'라고 부르는 김환기 특유의 기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5년경이다.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점들이 점차 연속적인 선들로 점을 에워싸는 형태로 캔버스 전면에 확대됐다. 1970년에 이르러 드디어 얇은 서예 붓을 이용, 전통 아시아 수묵화를 그리는 기법으로 전체 화면에 점을 찍어 완성한 점화를 최초로 선보인다. 1971년에 그려진 <우주>는 점화에 있어서 정신적·기술적 성숙함의 최고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색조와 농담의 다양성과 번짐 효과를 통제하는 그의 거장다운 기량은 웅장함과 더불어 끝없는 공간감과 깊이감을 생성한다.

1970년에서 1974년에 걸쳐 최고 완성도에 이른 김환기의 마지막 시기를 규정하는 짙은 푸른색 점들과 시적인 패턴은 그가 점화에서 구현하고자 한 초월적 특질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준다. 번짐 효과를 위해 물감 농담을 조절하는 그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화는 기법상 곳곳이 선 자세로 세필을 쥐고 농담과 번짐을 통제하며 한 점, 한 점 찍어야만 한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집약적 과정을 동반한다. 이로 인해 그의 척추신경은 심각하게 손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화의 완성도와 다양한 패턴의 시각적 사색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는 이 고된 작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쉬지 않고 점화 구상과 작업에 전념했다.

그는 결국 신경 관련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해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뉴욕에서 눈을 감았다. 전통 미감이 최고조로 발현됐을 뿐 아니라 희망과 생명, 영적 삶 등 곧은 정신을 상징하는 파란색은 김환기의 화폭에서 그리운 고국의 하늘이자 바다이며, 동시에 무한한 우주가 됐다.